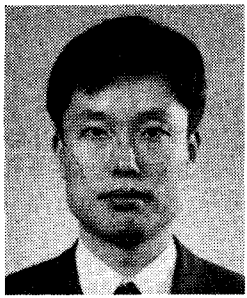


시론

정부조직개편에 부쳐

원칙대로 운영되는 관료제 실현 우선돼야



김 태 일

(사학계 행정직 교수)

IMF의 원조를 받기에 이른 경제 위기를 맞이하여 지금 우리사회의 각 부문은 다양한 형태의 개혁이 진행 중이다. 행정부문에 개혁의 필요성이 시급한 분야의 하나로 지목되어 현재 개혁 작업이 진행 중이다.

행정부문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흔히 지적되는 논리는 최근의 경제위기의 원인이 된 정경유착 및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 결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민간부문은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부부문도 마땅히 이에 동참하여 개혁을 실시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물론 이는 맞

는 말이다. 그러나 정부개혁의 필요성이 비록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더 두드러지기는 하였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정부 및 학계에서 폭넓게 논의되어 왔다. 예컨대, 얼마 전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중앙정부조직 개편안의 근거가 되었던 것은 작년에 총무처, 공공정책학회, 정부연구기관(KDI)에서 각각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이었다. 그렇다면 왜 행정부처(총무처), 학계(공공정책학회), KDI에서는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정부개혁을 위한 준비를 하였을까?

행정부문 개혁돼야

먼저 정권교체가 그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실 정부개혁 논의는 역대정권이 바뀔 때마다 있었던 것으로 별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과거 정권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정부개혁 논의가 있어 왔다. 하지만 정권교체가 최근 정

부개혁 논의의 근본원인이 되지는 못한다. 즉, 정부부처, 학계, 정부연구기관에서 비슷한 시기에 광범위하게 정부개혁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은 단순히 정권교체에 대한 대비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정부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차에 이를 정권교체의 계기로 실현하고자 했던 측면이 더 크다.

정부개혁 논의의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80년대 이후 진행된 OECD국가들의 정부 개혁으로부터의 자극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매체를 통하여 널리 알려진 대로 영국, 뉴질랜드, 호주, 미국 등 많은 나라들이 정부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규모의 정부부문 구조조정을 이루었다. 공공부문에 사기업의 경영논리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들 나라들의 정부개혁은 재정적자 감소에 기여하였으며 정부부문의 생산성을 크게 높였다.

우리나라 정부부문이 선진국들에 비하여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진 상태에서 우리보다 효율적인(!) 선진국 정부들이 생산성을 향상 위한 개혁을 단행하는 모습

은 관심있는 정부부처나 학계에 우리나라 정부개혁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게 하였다.

관료제 기본 설정돼야

오늘날 정부개혁 논의가 외국의 정부개혁으로부터 자극받았으며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지는 취지에 서 비롯된 것이라면 향후 정부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먼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외국에서 정부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취해졌던 각종 방안들이 도입될 것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정부부처 및 산하단체의 민영화, 계약제, 성과급, 예산운영의 자율성 부여, 재량권 확대 등의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외국에서 정부부문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취해졌던 방안들이 우리나라에 적용할 때는 우리나라 정부부문 비효율성의 원인이 외국의 경우와는 다소 다르며 따라서 처방도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외국의 정부부문 비효율성은 주로 내용보

다는 절차에,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우선하는 공공부문(혹은 관료제)의 특성에서 야기된 것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부문의 비효율성은 정경유착, 부정부패와 같은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원칙대로(법규대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오는 측면이 크다. 즉 정책의 결정이 정치논리에 좌우되고, 집행이 규칙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른 부작용과 낭비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미 법규에 의한 공정한 운영이 이루어진다는 전제가 확립되어 있는 나라들이 보다 효율적이기 위해 취하는 조치들이 그 전제조차 확립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뿐더러, 그 전제의 확립으로부터 오는 효율성의 증가가 더 클 수 있다.

앞으로 새정부의 정부개혁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최근의 경제위기 및 외국정부개혁의 선례는 정부부문의 관료제적 습성을 타파하고 사기업적 경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정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개혁의 기본 방향이 되게 할 것이다. 좋은 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칙대로 운영된다는 관료제의 기본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기업적 경영원리의 도입은 그 다음에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다.

사 설

나부터 시작하자

국제통화기금(IMF)시대라는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아 많은 대학들이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몇몇 대학은 한 차손, 방만한 경영 등으로 교직원 급여를 줄이거나 수개월째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상황이 신학기를 맞이하여 대학사회에 물고은 가장 직접적인 어려움은 경제사정으로 인한 휴학과 군입대, 편입학으로 인한 타학교로의 전출 등 등록 학생수의 절대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의 사학들은 대부분 등록금 의존율이 60~80%에 이르므로 학생 등록금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면 치명적인 재정적 압박을 받게 된다. 이러한 작금의 현상이 기존의 재정난과 맞물린 몇몇 대학들은 이미 대학재정의 파산 위기를 맞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대학은 야간학부의 증설, 편입학의 확대, 정원 자율화의 추진 등을 통한 학생수의 증원으로 그 해결책을 모색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대학간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으로 나타나 지방대학들은 학과정원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결과를 빚고 있으며, 수도권 대학들도 학생 유치를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학교 당국자의 말을 빌리면, 우리학교는 다른 학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자원이 적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은 겪고 있지는 않다고 전한다. 그러나 우리학교가 타학교에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것일 뿐이지 시기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지금 전환점에 와 있다. 이제 진정한 변화와 개혁이 없는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21세기를 선도하는 선진대학으로 거듭날 수 없다. 이를 위하여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은 대학 구성원 모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투명한 정보유통, 공정한 경쟁체제를 통해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일이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많은 불합리한 요소들이 있다. 이를 정상화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있는 대학이 될 수 없다. 작년 우리학교가 교육개혁 평가와 학과평가에서 최우수 성적의 성적을 얻었고, 수원캠퍼스 대학종합평가에서도 최고의 성적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학교가 국내대학중 상대적으로 타대학에 비해 나은 것인지 국제수준에서의 대학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모두가 어려움과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더 높게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 내부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대학풍토를 만들기 위하여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제진이 요구된다. 작금의 위기는 남의 일이 아니다. 이제 나부터 시작하자.

세 시 봉

술술 넘겨서는 안 될 술문화

"원샷!" "부어라! 마셔라!"

대학 초년생들의 신고식을 그 린 드라마나 영화라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대사들이다. 실제로 대학생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신입생 환영회에 술은 약방의 감초와 같은 존재로 자리잡은지 오래이고 이날 술을 한모금도 입에 대지 않거나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신입생이라면 말이다. 이러한 '술문화'는 낯선 사람들과의 첫 만남을 어색하지 않게 혹은 술기운을 빌어서라도 서로에게 술적인 모습으로 다가설 수 있을 바라는 선배들의 배려에서 시작되었으리라.

그러나 이제 그러한 선배들의 배려도 자칫하면 '죄'가 된다. 지난 96년 3월 일어난 이른바 '충남대 신입생 환영회 음주사망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가해 선배가 결국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더군다나 얼마전에는 연세대 예비 신입생 중 한명이 입학도 하지 못한채 술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시민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섰음은 물론 대학문화를 또한번 여론의 도마위에 올리고 마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과의 모든 책임을 선배들에게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신입생이라고는 하지만 정



강남이 취재부장

상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면 치사량에 달할 정도의 술 정도는 정중히 거절했어야 할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선배들의 태도를 전적으로 이해하자는 것은 아니다. 사실 선배가 후배에게 술 권하고 때로 강요하는 문화가 아직 잔존하고 있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후배 스스로 자제하지 못한 점을 탓할 수는 없는 일이니 말이다.

그러나 이번 연대대학생의 사고를 보면서 무엇보다 한심하다고 느낀 점은 때를 가리지 못하는 대학생들의 태도이다. IMF는 더 이상 들먹거리지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전국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그러한 시국에 밤새워 흥청망청 마신 술이며 여관방 투숙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부끄러움 따름이다. 앞뒤 안가리고 술을 먹고 먹는 대학생이어서가 아니라 늘 나라를 걱정한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것은 물론 국정의 비리에 대해 가장 격분하면서 실천만은 정반대를 향해 견고 있음이 부끄럽다.

이런 사고를 보고 앞으로는 후배들에게 함부로 술을 먹여서는 안되겠다고만 느낀 대학생들이 있다면 이말을 꼭 전해주고 싶다. 남을 타박하기 전에 자신을 되돌아 보라는 너무나 당연한 격언 말이다.

PC 통신원

사이버 가수 '아담'에 대해...

최근 우연히 TV를 보다가 '사이버 가수 아담 탄생'이라는 뉴스를 접하게 됐다. 몇 년전 처음으로 소수의 음악인들이 컴퓨터 음악을 선보였다. 그런데 이제는 컴퓨터로 모든 재능을 두루 갖춘 만능 가수를 탄생시켰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듯하다. 아담에 대한 관심은 PC통신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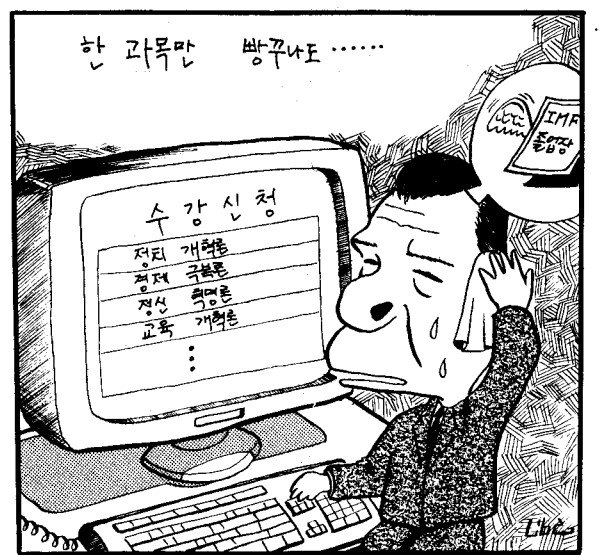
'아담'이 순전히 우리의 창조력으로 완성한 작품이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더라도 가능성을 인정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의 '다테교'를 모방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지금의 상황으로는 '아담'의 미래는 어두운 것이라는 의견(h1800)도 있었다. 또, 단순히 흥미와 상업적 목적에서만 출발하여 잘못된 방향으로의 추종이 우려된다는 의견(MEDIAH)도 있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한 이용자는 충분한 제작, 연구 기간 없이 졸속 제작을 한 흔적이 보인다고 어떤 영상산업의 마인드를 가지고 '아담'을 제작했는지 한심하다는 의견(moa2)을 내기도 했다.

한편, 사이버 가수, 사이버 공간의 확대는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므로 제어할 수 없는 일이라는 의견(38kdd)도 있었다. 그리고 사이버 가수나 TV가수나 술을 쉬느냐 안쉬느냐의 차이뿐 우리가 소비하는 건 음악과 이미지 아니냐는 의견(brave517)과 '스타', '연예인'이라는 존재는 무대위에서의 화려함과 가시적인 곳에서의 착하고 고운 모습들로 채워지는 것이다. 어차피 환상이 아닌가라는 의견(julia92) 등이 있었다.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인간을 더욱더 소외의 늪으로 빠지게 할 수도 있는 사이버 공간. 사이버 가수의 출현을 계기로 보다 많은 탐구가 이루어져야겠다. (김수란 기자)

경희만평

노회평



"여자가 아무리 바뀌어도..."

대학교육이 바로서야 이 사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성과 역량으로 조성된 경희발전기금은 우리학교가 역동의 시대에 대학사의 새로운 장을 열고 한국사회의 미래를 밝히게 할 것입니다.

21세기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기 위한 우리학교의 결의와 지적 창조성의 혁신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작은 정성이 경희의 밝은 미래를 여는 밑거름입니다

■ 등록금 한번 더 내기 운동

9학기 등록금, 모교발전의 튼튼한 토대입니다.

■ 장학금 되돌려 주기 운동

영원히 변치 않는 교적,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되돌려 줍시다.

경희발전기금! 이렇게 쓰입니다

■ 21세기 특별목적사업기금 조성

- 교육시설 확충(특수교육공간 건설 및 문화공간 확충)
- 학술연구/첨단과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우수교원 및 연구원 확충
- 종합 학술 정보 체계 수립/도서관 장서 구입
- 문화예술/창작/체육진흥기금
- 장학/각종 고시육성 후원기금

경희발전기금 참여안내

경희사랑은 「경희사랑저금통」에서부터라는 경희사랑 실천운동의 하나로 시작된 경희사랑저금통 예금기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귀한 발전기금은 우리학교 발전에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 대 상: 경희가족(동문, 학생, 교직원, 학부모), 독지가, 기업, 기관, 단체 등
- 기부형태: 현금, 주식 및 유가증권, 도서자료, 실험실습기자재, 기타자산 등
- 일시 및 분할 납부: 일시 또는 월납등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 또는 단체별 (예: 직장/지역동문회 등)
- 각 학과/대학(원)별 특정목적기부금으로 지정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무통장입금(예금주: 경희대학교)

국민은행 010-01-0618-642
서울은행 17301-2710-209
농협 031-01-396711
우체국 012336-0025556

한일은행 070-084146-13-101
외환은행 131-13-10336-6
평화은행 044-01-001-286
경희사랑저금통기금(서울은행) 17308-9505323

■발전기금 납부방법은 다음 중 어느 것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 약정서에 기재하신 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방법.
- 현금을 출연하시거나 할 때에는 일시에 출연하거나, 금액을 약정하여 원하시는 횟수대로 분할하여 출연하실 수도 있습니다.
- 유연한 또는 전신환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급여공제(교직원에 한함)가 가능합니다.
- 유가증권이나 기타 자산 출연은 개교50주년사업회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립니다.
- 유산 상속이나 기타 소유 부동산(건물, 토지 등)을 헌납하실 수 있으며 모든 법적수속과 관련비용은 학교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희대학교 개교50주년기념사업회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경희대학교 개교50주년기념사업회

(130-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 Tel: 961-0931/2 Fax: 961-0906